**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20, 사울이 다윗에게**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저는 구약 역사, 문학, 신학 과정의 20번 강의에서 일레인 필립스 박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드시기 위해 몸을 굽히신 일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처럼, 방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다른 많은 축복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친구와 교제와 기독교 공동체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 공동체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바라시는 교훈을 오늘 배우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 주님의 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윗의 성장과 사울의 몰락으로 나아가면서 약간의 복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작업할 아트웍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누구를 묘사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데이빗 맞죠? 자, 누가 데이빗인가요? 오른쪽. David는 바로 여기서 하프를 들고 있는 손입니다. 사울과 비교하여 그 묘사가 얼마나 작은지 주목하십시오.

그가 들고 있는 눈에 띄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건 창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악령에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것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인물, 즉 다윗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과 사울에게서 옮겨진 여호와의 영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병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을 했는지 상기시켜주는 몇 가지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작은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왕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보다도 길갈에서의 그의 주제넘은 희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칠일을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일을 기다린 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계통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여 그들에게 온전히 처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그 모든 최고의 희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물 등이었고 또한 왕을 살려 두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울은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은? 첫째, 여러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더라도 아마도 다윗이 한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죄가 왜 그토록 더 심합니까? 사울의 죄는 다윗이 지은 죄보다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오늘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게 될 때인데 David의 이야기는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울의 죄가 얼마나 더 심합니까? 좋아요, 그 사람은 제물을 바칠 만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아요.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주일학교 아는 사람 있나요? 사라?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신성한 제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좋아요,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있고, 밧세바와 간음한 죄가 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제 생각에는... 심장 문제가 뭔데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내 말은, 당신은 분명히 이 사람들을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인류에게 인정한 것처럼 끝내기 위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그 사람이 간음한 후,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겸손했고,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아니요, 사실 저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단지... 좋아요, 그럼 당신은 그들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그들이 기꺼이 고백하는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밀어붙이겠습니다. 데이빗, 그리고 다시 한번 금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실제로 오기 전까지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네이선이 실제로 와서 그가 잘못한 일을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와서 여기에 비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것이 심장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의 겸손과 그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가 완전히,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약간 은폐하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기념물을 만들고 그의 명예가 대중적인 접근 방식 등에서 뒷받침되도록 노력하는 데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레버? 사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빨리 판단을 내려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렇게 빨리 처벌하시는 것이 정말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사울은 매우 속히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지자 나단 등이 그를 회개할 지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으로 인해 여전히 여러분을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몇 가지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알았지, 첼시? 좋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마도 다윗과 함께 지속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에 관한 문제를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점은 잘 이해되었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그 중 하나는... 계속하세요. 미안해요, 수잔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윗, 또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지속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볼 때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것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생각과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지자들 중 사울은 다윗의 마음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이러한 영의 나타남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일시적이며 반드시 내주하시는 영의 증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이 되어 사울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할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긴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오랫동안 왕이 되어 이런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습니다.

내 말은, 여기서 진짜 편집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를 붙잡으면 실제로 제안할 만한 흥미로운 진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를 한 몇몇 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왜 수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왕국에 매달리고 있는지,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나단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당신은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나의 왕조는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남겨두셨다고 생각합니까? 어서 가세요, 레베카. 좋아요.

따라서 이것은 사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준비시키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처음 이곳에 등장했을 때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응, 진저.

따라서 이는 왕이 반드시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배워야 하는 더 넓은 대중을 위한 교훈입니다. 혹시. 사울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실제로 자비입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을까? 이것들은 모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한 던져서 아마도 사울이 아모리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400년 동안 살았던 우리 아모리 족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더 있어요. 물론, 비극은 그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울이 그 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으로 자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과 악한 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중 일부를 제기했지만, 이 모든 논의를 진행하면서 마침내 다시 돌아와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모든 측면을 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간단히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Walter Brueggemann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길들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이러한 상황 중 일부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이러한 개인적, 국가적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질문이 우리의 영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왜 그는 그것을 허용합니까? 지금 우리는 베일을 통해서만 부분적인 답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궁극적인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작용해야 합니다. 글쎄, 계속하자.

오늘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싶어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Ruth도 이 계열에 속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오늘 실제로 읽은 내용에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스트레스를 받아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압으로 옮겨 한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그는 그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무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실제로 사무엘서 16장으로 돌아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일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하려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맙소사, 만약 사울이 이것이 정말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가서 희생을 치르겠다고 말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그곳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새는 그의 처음 세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로 나왔던 다윗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음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신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막내거든요. 이 맥락에서 David는 가장 어리다.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앞에서 그에게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에게 정말 특별한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 때, 주님의 영이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여 사실상 그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다음 구절이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이유입니다. 14절,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으니, NIV에서 말한 대로 사울이 실제로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 달려들어 겁을 주고 놀라게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며 그를 온통 뒤틀어 놓는 악령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무언가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글쎄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악한 영 전체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의 관점에서 대문자 S는 어떤 목적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선택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그가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전 장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며 이는 그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나중에 이 동일한 정신이 맥락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19장에서는 실제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그 영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점에서는 여전히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안은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신학적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가 방금 여기까지 왔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울이나 사울에게 구체적이고 강력하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영이 있으며 그러한 일 중 일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주하는 영이라고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요점: 이것이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이전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 중 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왕권이 그에게서 제거되었음을 알게 되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 사울의 이야기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 지속적인 반역, 지속적인 자기 섬김 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영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약 2주 후에 공부할 시편 51편을 보면 당신이 히브리어로 부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편이 나올 때, 그리고 물론 다윗이 그 자신의 영의 영감을 받아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본 경험에 관한 어떤 것이 또한 그의 부르짖음 뒤에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우리아 등의 상황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의 존재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영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영을 제거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글쎄, 여기에 그림의 나머지 부분, 즉 그림의 반대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주님의 영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각 구절을 읽고 사울이 불순종과 반역을 계속하는 성향의 결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때, 나는 이것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말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모두 정리할 방법이 없지만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일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천국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권.

우리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지도자임을 보여줄 것이며, 그가 말했듯이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내용에서 사울을 존재에서 제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만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은,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그림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끌려간 것은 사울이 성령으로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선하신 섭리의 감독 속에서, 그것은 매우 실질적으로 말해서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것과는 반대로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 중 하나입니다. . 글쎄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선 다윗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의 측면에서 그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범주의 사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사용됩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데이빗은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음악치료,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음악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큰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모든 이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음악을 제공합니다. 물론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에 관해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지도를 보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 그는 실제로 그의 형제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그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도를 보시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의 아버지가 그를 그곳으로 보내는 데 관심을 두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가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 중 교훈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시점까지 그가 했던 모든 일, 즉 사자와 곰에게 돌을 던지고 양을 치는 일이 바로 그에게 꼭 필요한 준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지라도, 형들이 그를 무시하면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양떼와 함께 돌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삶의 일부인 모든 것.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중 일부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년 전 제가 다른 기관에서 가르쳤을 때 어느 날 그 기관의 회장님이 채플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50대쯤 되었는데,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말했는데, 그 일은 오랫동안 상당히 비천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생각했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는 이 시점에서 그의 삶의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와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각각에서 사용하신 것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양을 향해 돌을 던진 거죠. 그분은 골리앗이라는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을 죽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점은 David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David가 그의 성격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실 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확신했으며 골리앗이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경멸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 측면에서도, 그리고 Kristen이 이전에 그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말했듯이 그것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관해 할 말이 더 많지만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인기있는 전사입니다.

사실, 그는 너무나 인기 있는 전사여서 사울을 꽤 화나게 했습니다. 이 후렴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자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기타 등등을 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수만이 죽였다고 말하지만, 물론 사울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인기가 많아요. 데이비드는 인기가 많아요. 그 결과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는 사위가 된다.

사실, 이곳은 실제로 사랑에 빠진 여자가 등장하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다윗이 그녀를 얻기 위해 매우 흥미로운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제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쎄, 당신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손에 들고 나타나시면 좋겠고, 다윗은 200개를 가지고 와서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은 피투성이의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렸나요? 그는 머리를 잡고 사울 앞으로 행진합니다 .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도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 앞으로 행진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꽤 끔찍한 일입니다. 그는 또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조나단의 우정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나단은 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연대기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반 세대, 어쩌면 그들 사이에 한 세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기희생적인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확증하고, 다윗을 보호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사울을 따르는 대가로 요나단이 다윗과의 우정, 즉 다윗과의 언약적 우정을 쌓을 것입니다. 우리는 룻과 나오미에게서 헤세드가 활동하는 것을 보아왔고, 보아스와 룻, 룻과 나오미와 함께 수평적 수준에서 헤세드가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놀라운 우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지형에 대해 약간의 느낌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블레셋 도시들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거 기억나?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정말로 알고 싶다고 제가 말한 것들은요? 오른쪽? 그들은 여기 해안가에 있습니다. 내부의 두 사람은 가드와 에그론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소코와 아세가카 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간 지방으로 곧장 올라갈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은 왜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데이비드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조금 걱정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황이 나빠지면 그들은 바로 이 계곡으로 진군하여 그 산간 지방을 차지할 것이고 생활은 매우 암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에스겔 위에 서 있습니다. 괜찮은? 에스기야 위에 서서 이렇게 흘러가는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은 유대 산간 지방이다.

바로 저쪽에 베들레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고는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소코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요. 블레셋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계곡 건너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고 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David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거의 알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중 일부는 당신이 조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바로 저기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전체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셰펠라의 완충지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해안 평야에 있는 블레셋의 국제적인 군대와 여기 산간 지방에 있는 우리의 작은 정착지 사이에 있어야 했던 보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 나쁜 시절을 잘 견디고 있어.

다시 지도를 집어듭니다. 노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나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어서 가세요, 레베카.

그렇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기 전에도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거기로 갔는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은 '도와주세요. 우리는 왕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다. 좋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사라가 앞서 제안한 것처럼 임재의 빵을 얻습니다. 그는 이 봉헌된 빵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는 또한 골리앗의 검을 받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지켜보나요? 매우 흥미롭고 불쾌한 캐릭터입니다. 사라? 아, 그 시점에는 아닙니다. 아브너는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귀하의 정원 품종 이름입니다. 늘 보는 이름이군요.

도엑. 네 친구들은 모두 도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니? 도그, 그렇죠. 에돔 사람 도엑은 정보원입니다.

그는 다윗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다음, 리브가의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사울은 몹시 화가 났고 기본적으로 놉의 모든 제사장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이것은 장래에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사울에게는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첼시? 네, 에봇이에요. 에봇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림 과 둠밈이 있는 가슴 부분 .

오른쪽? 그래서 나중에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다윗이 주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가엘라로 올라가야 합니까? 예. 아마도 도망한 아비아달이 여호와께 물어볼 방편이 들어 있는 에봇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은 아비아달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안돼요. 저는 그를 그곳에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그 무게를 느끼고 있고, 죄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시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왕은 아기스요, 아기스는 가드 왕입니다.

이번에도 가드라는 도시를 기억해 두십시오. 블레셋 도시의 내부 중 하나입니다. 이 시점에서 Achish는 '아, 이 사람은 정말 미쳤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멀리 달려야 합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불만을 잔뜩 집어든다. 따옴표 안에 군대가 있어요.

불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줄 사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물건이 아마도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인기 있는 전사였으며 훌륭한 전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충성심을 바꾸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윗의 세력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황야 지역 주변에 작은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보면 좀 힘들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뒤쪽은 아마도 절망적일 것입니다. 여기 마온이 있습니다.

여기 카멜이 있습니다. 여기 Zipf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온 이 장의 이 섹션에 세 개의 도시가 나타납니다.

Maon과 Carmel은 특히 Abigail과 함께 전체 내러티브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나발(Nabal), 즉 해군(Naval)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 최악의 바보. 잠언에 이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뜻하는 다양한 히브리어 단어들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것입니다. 가장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마음이 완고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이름이에요.

데이비드를 달래기 위해 나올 그의 아내와의 흥미로운 대조. 그리고 그녀가 남편이 다윗에게 주기를 거부한 모든 식량을 가지고 나올 때 그녀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나에게 물건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빚진 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bigail이 나오자 그녀는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2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인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라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 당신에게서 어떤 불법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십시오. 즉, 그녀는 그에게 이 문맥에서 피를 네 손에 묻지 말고 무죄한 피를 네 손에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비록 어떤 사람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내 주인 다윗의 생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 자들의 묶음 안에 안전하게 결박하실 것임이니라 31절, 내 주인은 쓸데없는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한 일로 무거운 짐을 떠맡지 말게 하소서. 애비게일은 처음부터 아름답고 매우 지적인 여성으로 묘사되며, 여기서 그녀는 데이비드를 대하는 방식 측면에서 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동안 이곳에서 흥미로운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살펴볼 몇 가지 사항. 왼쪽 그림을 보면, 일어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알아내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야생 지역을 관통하여 깎인 V자형 계곡보다 더 가파른 V자형 계곡인 수많은 와디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산간 지방에 비가 내리면 물이 이 계곡을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쪽 길을 따라 걷고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6장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는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자고 있어요. 아브넬은 자고 있어요. 그들은 사울의 투구를 빼앗고 그의 창과 물병과 실례와 창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가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불러 말하되 너희가 내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런 교환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사울은 다윗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몇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면에서 특히 사울과 아브넬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지형학적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느낌을 줍니다. 여기 우리는 단지 광야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달려가던 분야였습니다. 불모지야. 수원과 샘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대체로 불모지이다.

다윗은 견고한 곳에서 견고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 거기에는 꽤 암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거 너무 빨리 했네요. 계속해서 27장을 보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기스는 실례합니다. 아기스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데이빗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가 더 일찍 거기에 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오래 머물지 않고 약간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한 후(27장 1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망하리라고 생각하였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도시들을 아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까? 좋아요, 정말 훌륭해요. 여기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입니다.

가드, 에그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중심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도시. 물론, 그들은 동쪽으로 밀고 있고, 북쪽으로 밀고 있지만, 그곳은 도시입니다. 아기스가 하는 일은 다윗을 바로 이곳 시글락이라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이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네게브를 통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부 네게브는 거기에 있는 흰색 타원에 의해 절반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 세기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서부 네게브를 통해서입니다. , 아주 아주 좋은 향신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신료는 사우디아라비아, 더 먼 동쪽 지점에서 옵니다. 향신료를 지중해로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는 낙타를 타고 네게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의 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무역 경로가 있고 아마도 Achish가 하고 있는 일은 물건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을 감독하도록 David를 임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원한다면 데이빗을 보안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 대머리가 되고 싶다면 그것은 계략이거나 계략이거나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David는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합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기민하네요. 특별히 진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자. 27장. 6절,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줍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게셀 사람 과 게르스 사람 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니 생각하기를 아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곳의 반 유목민과 유목민들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시내산 북부, 네게브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

그래서 다윗은 남부 유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자. 9절에 보면 다윗이 한 지역을 칠 때마다 남자나 여자를 살려 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당나귀와 낙타와 소를 이끌고 아기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Achish는 오늘 어디로 습격하러 갔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글쎄요, 나는 다음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공격하러 갔습니다. 유다의 네게브. 여라크미엘의 남방과 겐 족속의 남방을 치느니라

그는 아기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가 Achish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내 가족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네게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 부분. 그래서 그가 Achish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입니다.

괜찮아요. 나는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반유목민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한가요? 글쎄, 그는 Achish가 그를 신뢰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Achish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위한 정치적 자본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임명한 첫 번째 지파는 어디일까요? 유다.

그는 먼저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갚아야 할 정치적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잘해줬어요.

괜찮은. 글쎄, 어쨌든 우리는 실제로 이 아말렉 사업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출발했을 때(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시글락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습격합니다. 확실히.

내 말은, 그들이 데이빗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은 기회를 봅니다. 30장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쳤던 모든 물건을 되찾고 다시 가져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다음 10분 동안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른쪽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험에는 지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레셋 도시가 있습니다. 벌써 내려놨어? 좋아, 그곳은 그들의 영역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말한 것 중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넘어 이스라엘 안으로 깊숙이 침투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그들은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갈멜산을 통과합니다. 그들은 북쪽의 네 지파를 멸절함으로써 삶을 매우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남쪽 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북쪽 네 지파. 그러니까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자, 지도에서 이것은 모레 산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이시죠. 길보아산입니다. 거기에서도 보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 모든 계곡 지역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 중 하나는 모레 산 동쪽, 즉 바로 여기나 저기에 엔돌이라는 작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 그 이름이 떠오르나요? 엔도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서 가세요, 수잔나.

거기 마녀가 있어요. 좋은. 그리고 그녀는 어떻습니까? 오른쪽.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말했듯이 그녀의 요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사울은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변장한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산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와 모레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적진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떼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전체 군대를 실제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엔도르에 있는 이 마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적진 뒤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가 말했듯이, Susanna가 말했듯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마녀를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달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이 지도는 사울이 이 시점에서 감수하고 있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약간의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28장은 우리가 정말 살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가 거기 도착하면 나는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가서 나를 위해 영에게 상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이름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그녀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자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키울까 하더라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한 그녀의 반응으로 인해 당신은 그녀의 마법이 아마도 약간의 가짜였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나면 그녀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그것은 정말 날카로운 비명입니다. 왜 나를 속였나요? 당신은 사울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NIV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나는 엘로힘을 본다'고 말합니다. 나는 엘로힘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저게 뭐에요? 나는 NIV의 본문에 '내가 영을 본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신? 하나님? 이제 그녀는 아마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엘로힘으로 보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복수 의미로 여기에서 매우 이상한 표현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식으로든 초자연적인 신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정신 번역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나는 엘로힘이 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것을 묘사했고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아직 그걸 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백업할게. 사무엘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소름끼치는 메시지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떠나 너희의 원수가 되셨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의논하느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군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가 되셨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 분은 나를 통해 예상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에게 진노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순종,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사무엘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글쎄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것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도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7절. 골짜기 건너편의 이스라엘 자손과 요단 건너편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점령하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었던 지역을 거의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며, 사울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물려받게 되면 정말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요일에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자. 8절.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더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시체에 어떤 짓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추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군대를 약탈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자들을 보냅니다. 왕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아스토라 신전에 두고 그의 몸을 베이트샨 성벽에 고정시켰습니다. 꽤 끔찍한 것들 이죠 .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11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밤새도록 벳산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모셔 야베스로 가서 불살랐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토록 구출하고 사울과 요나단과 형제들의 시체를 사후에 기리는 데 열중합니까? 왜 야베스-길르앗인가? 사라?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그들이 요르단을 건너간다면 베냐민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의 부족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르우벤이나 갓인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베냐민 지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케이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응, 거기엔 관계가 있지, 그렇지? 오른쪽?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도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듯이 사사기의 끝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를 보충하기 위해 이 여인들 중 일부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긴 스레딩 연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무엘하 1장에 한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데이빗이 말해요, 당신은 누구요? 그는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는 아마도 다윗이 그에게 보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David는 이 전체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David는 다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음, 그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줄 사이를 읽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 사울을 해친 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친 자에게 무엇이든 상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말했듯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말렉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방금 말한 것을 시적인 형태로 확증합니다.

다윗은 적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적들은 이 경우 사울입니다.

대신 그는 가장 가슴 아픈 노래 중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네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23절,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서도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죽어서도 서로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느니라.

25절, 용사들이 전쟁에서 엎드러졌도다. 조나단이 당신의 높은 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 형제 조나단.

당신은 나에게 매우 사랑 스러웠습니다. 나를 향한 너희 사랑은 기이하였으니,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하였도다. 용사들이 얼마나 쓰러졌고, 전쟁 무기들이 얼마나 멸망하였는가.

그래서 다윗 은 자신과 요나단이 나눈 언약적 사랑의 심오한 깊이를 재확인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죽었고, 다윗은 그 고통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울에 대한 고려는 끝났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왕국은 이 시점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잘 시작되었던 사울의 왕국은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David는 그것을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금요일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